

- 주요 뉴스: 미국 7월 구인건수, 10개월 만에 최저 고용 둔화 및 9월 금리인하 전망 강화
 - 연준 월터 이사, 수차례의 금리인하 필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연내 1회 주장
 - 중국 8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15개월래 최고치. 내수 및 해외수주 등이 호조
 - 일본은행 총재, 경제 전망 현실화 시 금리인상 지속. 다만 정책 관련 유연함도 유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9월 금리인하 기대 증가 등이 영향

주가 상승[+0.5%], 달러화 약세[-0.3%],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9월 금리인하 전망, Alphabet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장기 국채금리 하락 전환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부진한 7월 구인건수 등이 반영되며 하락 마감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발언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5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87.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0.4원, 0.14% 하락). 한국 CDS 약보합

		9/3일	9/2일	전일대비			9/3일	9/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448.3	6,415.5	+0.51%	국채 금리 10y	미국	4.22%	4.26%	-4bp
	유럽	546.78	543.17	+0.66%		독일	2.74%	2.79%	-5bp
	중국	3,813.6	3,858.1	-1.16%		영국	4.75%	4.80%	-5bp
	일본	41,939	42,310	-0.88%	CDS 5y	한국	20bp	20bp	-0bp
	한국	3,184.4	3,172.4	+0.38%		중국	42bp	43bp	-1bp
환율	달러지수	98.14	98.40	-0.26%	위험 지표	EMBI+	-	360	-
	유로화	1.1662	1.1640	+0.19%		VIX	16.35	17.17	-4.78%
	엔화	148.10	148.36	+0.18%		WTI유	63.97	65.59	-2.47%
	위안화	7.1421	7.1383	-0.05%	원자재	구리	455.9	457.0	-0.24%
	원화	1,392.3	1,391.0	-0.09%		금	3,559.4	3,533.2	+0.7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7월 구인건수, 10개월 만에 최저. 고용 둔화 및 9월 금리인하 전망 증가

- 미국 7월 구인건수는 718.1만건으로 전월(735.7만건) 대비 감소했으며, 이는 10개월 만의 최저 수준. 구체적으로 헬스케어, 소매, 레저 및 접객업 부문이 부진. 이는 무역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이 고용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다만 해고율은 1.1%를 기록,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
- 그 동안 고용을 견인한 주·지방정부 및 헬스케어 부문의 구인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Renaissance Macro Research). 일부에서는 고용 둔화 지속 시, 향후 수요 감소 및 인플레이션 하락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Bloomberg Economics).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CME의 FedWatch는 95.6% 제시)
- 7월 제조업 수주는 전월비 1.3% 감소하여 예상치(-1.3%) 부합. 이는 항공부문 부진에 기인. 다만 기업의 시설투자를 의미하는 항공기 제외 근원 자본재 수주는 1.1% 늘어 전월(-0.6%)의 부진에서 전환
- 지역 연은의 경기동향평가를 종합한 베이지북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이전과 유사. 다만 완만한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출은 이전에 비해 다소 부진하거나 비슷한 상황. 이와 관련하여 가계는 경제 불확실성 및 관세를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 반면 데이터센터 건설은 전국적으로 호황을 구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월러 인사, 수차례의 금리인하 필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연내 1회 주장

- 유력한 차기 연준 후보 중의 한 명인 월러 이사는 9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하며, 이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 다만 금리인하 속도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 인플레이션은 점차 연준의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내 1회의 금리인하가 적절하다고 발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최근 고용 둔화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현행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반면, 향후 금리 관련 의견 제시는 자제

■ BofA, 미국 근로자의 재무 건정성 우려 증가. PwC는 연말 소비 둔화 예상

- BofA의 근로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재정 건정성이 양호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연초에 비해 하락(52%→47%). 반면 부채를 우려한다는 비율은 85%로 높은 수준.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연말 지출은 전년비 5.3% 줄어들 전망.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폭 감소

■ 영국, 내년 예산 엄격한 지출 중시. 프랑스 예산은 정치적 타협 여부에 좌우될 전망

- 영국 리브스 재무장관은 11월 내년 예산을 발표할 것이며, 엄격한 공공지출을 중시할 것이라고 발언. 한편, 프랑스 바이어 총리는 재정적자 축소 목표가 유지된다면 야당 주도의 예산안을 수용하겠다고 언급. 다만 야당의 정부 예산안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롬바르 재무장관은 바이어 총리가 실각하면 재정적자 축소 계획 관련 야당과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

■ 중국 8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15개월래 최고치. 내수 및 해외수주 등이 호조

- 8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는 53.0을 기록, 전월(52.6) 대비 상승하면서 '24년 5월 이후 최고 수준. 이번 결과는 여름 여행 시즌에 의한 내수 회복과 해외 수주 등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일본은행 총재, 경제 전망 현실화 시 금리인상 지속. 다만 정책 관련 유연함도 유지

- 우에다 총재는 물가 및 경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언. 다만 고정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며 경제 여건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 OPEC+ 관계자, 추가 증산 검토할 방침. 공급 확대 가능성에 국제 유가는 하락

- 관계자들에 따르면, OPEC+는 7일 각료회의에서 추가 증산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 이를 반영하여 10월 WTI 선물가격은 전일비 하락(63.97달러, -2.5%)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4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ADP 민간고용, 8월 ISM 서비스업 PMI
- 미국 8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관세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연착륙 가능성 축소 - 블룸버그

(Tariff chaos reigns and America's economy suffers)

- 항소법원이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결.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관세 대상이 감소할 수 있으나,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유지 또는 신규 부과할 가능성 상당. 이에 관세 수준과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 구체적으로 ▲투자고용 위축에 따른 성장 둔화 ▲연준의 정책 결정 어려움 가중 ▲관세 수입과 연계된 재정 전망 불확실성 심화 등이 발생할 소지
-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관세 수입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 연간 5천억 달러가 넘는 관세 수입은 재정적자의 4분의 1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 만일 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를 되돌리기 어려워 미래 정부의 정책 선택을 제약

■ 글로벌 장기국채시장, 고위험 고수익의 기본법칙 작용에 주의 요구 - 블룸버그

(Could Bond Markets Finally Be Making Sense Again?)

- 수십 년 동안 부유한 국가들이 막대한 부채로 경제를 지탱하면서도 장기 국채금리는 오히려 내리는, 기본법칙이 무시되는 현상 지속. 하지만 '22년 이후 대다수 부유국의 장기 국채금리(30년물 기준) 상승세 유지로 경제적 문제와 추가 상승 우려가 부각
- 구체적으로 국가별 대규모 부채와 실질적인 채무 탕감 노력 부재,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하락과 선진국의 '공짜 돈(free money)' 시대 종말 가능성이 제기. 특히, 연준과 ECB 등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사이클 시기에서 중장기 금리 상승은 위험 전망 악화를 의미

■ 중국의 기회주의적 위안화 평가절하, 유럽의 무역 충격 심화 유도 - 블룸버그

(China's 'Opportunistic Devaluation' Fuels Europe Trade Shock)

-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 재정적자 증가, 트럼프 경제정책 우려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두드러지며 다른 통화들은 대부분 큰 폭 강세를 시현. 하지만, 중국 통화당국은 달러화 약세를 이용하여 유로화 및 기타 통화에 대해 평가 절하를 추진. 이는 '기회주의적 평가절하'를 의미(Eurizon SU Capital)
- 실제로 연초 이후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의 상승은 3% 미만(유로화, 12%)에 불과. 이는 중국의 유로존 내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그에 따른 대규모 무역흑자(1~7월 1,680억달러 초과)를 유발. 이에 유럽은 과거 미국의 실수(대미 흑자 확대 불구 수년간 고정환율 유지 허용)를 거울삼아 중국에 강력한 통화정책 수정을 요구할 필요

-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시도, 주장과 실제 행태의 괴리로 기대난 - Financial Times**
(China's new world order)
 -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세계 질서 재편 의도를 시사. 또한 미국 트럼프의 압박으로 위협에 직면한 국제법 및 자유무역 질서와 관련해 오히려 중국은 질서 수호에 기여한다고 강조. 아울러 주권 평등의 원칙, 다자주의, 국제법 준수 등으로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
 - 하지만, 실상은 ▲자국 이익을 위한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 ▲국제기구의 민주화보다 지배력 강화에 관심 ▲자유무역 옹호를 외치면서 전략산업에 대한 무역장벽 유지 등으로 표리부동한 모습. 일각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조성을 우려하나 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소지. 다만 이제까지 영향력 행사에 소극적이었던 EU의 글로벌 역할 확대가 더욱 요구될 전망
- **미국 의회, 연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헌법상 권한 행사할 필요 - WSJ**
(Trump, Lisa Cook and the Federal Reserve's Independence)
- **미국 2/4분기 기업이익 증가, 고용 감소·가격 인상 부담 등의 문제도 내재 - WSJ**
(Behind This Season's Bumper Earnings: Job Cuts, Price Hikes, Glum Workers)
- **중국의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미국 달러화 패권 강화로 귀결될 소지 - The Economist**
(China turns crypto-curious)
- **중러 가스관 건설 합의, 미국의 對中 에너지 수출 추진에 부정적 영향 예상 - 블룸버그**
(Putin's Energy Wins in China Deal a Blow to Trump's Export Push)
- **메모리 반도체, AI 혁명의 새로운 전장. 기회와 위험이 공존 - Financial Times**
(Why memory chips are the new frontier of the AI revolution)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